

韓 AI·DX·6G 등 차세대 기술력 뽐내... 중견·中企 약진

전시회 최대 화두 '협업'
8만8500명 이상 관객 몰려
4879억 경제적 효과 추산

2일(현지시각)까지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에 8만8500명 이상의 관객이 몰려 성황리에 폐막했다.

'속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MWC는 코로나19가 퍼진 이후 처음으로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됐다. 202국에서 2400여 기업이 참가했다. 전시회를 찾은 방문객은 당초 예상보다 10%가 늘어났다.

행사 주최측은 이번 전시회로 3억 5000만 유로(4879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30여개사 참여... '홀3'는 발 디딜 틈 없이 인파 몰려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에 따르면 이번 MWC에는 국내에선 대기업 5개사, 중견·중소기업 60개사, 스타트업 65개사 등 총 130여개사가 참여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에는 MWC에 역대 최대인 201개사가 참여했으나 코로나 이후 전시회가 재개됐지만 참여기업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76개사가 참석하고, 지난해에는 108개사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 130여개사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MWC가 대면행사로 진행되면서 전시회가 열리는 바르셀로나 피라그란 비아에는 참가기업은 물론 수많은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홀3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주로 부스를 마련하는 홀3에는 한국에선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았다.

SKT의 부스에는 개막 첫 날에는 1만 명의 인파가 몰리고, 누적 방문자 수가 5만명을 돌파하는 등 전시 흥행에 성공했다.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7일(현지시각)부터 나흘간 열린 MWC23에서 누적 방문객 수가 5만 명 이상을 돌파하는 등 수많은 관람객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각)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한 방문객이 폴더블 스마트폰 '플렉스S' 시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시스

SKT의 부스에서는 성장형 AI 서비스인 'A.(에이닷), AI반도체인 사피온을 비롯해 UAM(도심항공교통), 인포테인먼트 로봇 등 제품이 전시돼 수천 명의 방문객들로 활기를 띄었다.

또 올해 전시회의 화두는 '경쟁'보다는 '협업'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업들이 초거대 연결사회에서 단독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기업과 협업을 통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GSMA 이사 자격으로 기조연설에 나서 '협업을 위한 시간인가'에 대한 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구 대표는 "5G 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리 및 가상세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디지털 협업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KT는 이번 전시회에서 모빌리티·자율주행 등 DX(디지털전환) 플랫폼, 로봇 체험을 할 수 있는 DX 기술선도, 금융·미디어 콘텐츠 전시 및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는 DX 영역확장 등 3개의 테마존을 전시했다.

◆화웨이 대규모 전시관, '폴더블폰' 처음 전시해 관심

올해 중국업체인 화웨이는 홀1에 9000㎡에 이르는 대규모 전시관을 마련

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이 전시관 규모는 삼성전자보다 5배 이상 넓은 면적이며, MWC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다.

화웨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폴더블폰을 이번에 처음 전시했다. 지난 5월에 출시한 아웃폴딩 방식의 폴더블 스마트폰인 '메이트 Xs-2'를 선보였다.

특히 중국기업들은 그동안 중저가 스마트폰을 내세워 영업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전 세계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판매단가가 높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번 MWC에서 폴더블폰 등 초고가 프리미엄 폰이 많이 전시됐다.

SKT 누적 방문자 5만명 돌파 삼성 폴더블폰 체험 인파 몰려 KT 인텔과 '와이파이7' 선배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경쟁사들이 폴더블폰 대열에 합류하는 등 폴더블폰과 플립폰은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삼성이 열어젖힌 가치에 대해 경쟁업체가 인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샤오미는 '샤오미13' 시리즈를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했는데 이 제품의 가격은 180만원에 이른다.

이번 전시회에서 6G와 챗GPT로 관심을 모은 AI 기술과 함께 '메타버스' 서비스도 큰 관심을 받았다.

텔리포니카, 도이치텔레콤, 오랑주, 보다폰 등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은 메타버스 기술이 교육 및 게임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또 화웨이, ZTE, 오포 등 중국 제조사들은 증강현실(AR)이 적용된 스마트글라스 등 메타버스 단말기를 전시했다. 삼성전자도 메타버스 기기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메타버스는 큰 관심을 모았다.

또 반도체업체들은 MWC에서 초연결 기술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초고속 통신에 적절한 반도체 제품들을 전시했다.

인텔은 KT와 공동으로 '와이파이7'을 선보였는데, 와이파이7은 IEEE에서 연구 중인 802.11be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와이파이 규격이다. 퀄컴은 화웨이, 모토로라, 닛성, 오포, 비보, 샤오미 등과 협력해 '스냅드래곤 새틀라이트'를 활용한 위성통신 지원스마트폰을 개발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AMD는 이번 전시회에서 5G 통

신 구축 가속화를 지원하는 무선 솔루션을 선보였다.

◆중견·중기 우수기술 관람객 사로잡아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는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와 한국관을 공동 운영하며 우수기업 기술 발표회 등을 진행했다. KICTA는 전시관 7홀 중앙에 대형부스를 설치하고 국내 중소 통신장비 기업 17개사가 참여한 '코리아 우수 통신장비 종합홍보전'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 전시장에서는 한국우수 중소기업의 통신장비를 한데 모아 전시함으로써 3000여명이 방문하는 효과를 거뒀다.

KICTA는 또한 유럽 바이어연맹 'E EN'과 함께 참가기업을 매칭시켜 글로벌 통신사에 유통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한국의우수한 통신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단체 관람객이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MWC에서 아쉬운 점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신기술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숲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영양군 산악자연휴양림

길

영양군 산악자연휴양림, 영양군 산악자연휴양림

빛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 영양군 산악자연휴양림

맛

한반도에서 가장 맛있는 맛, 영양군 산악자연휴양림

연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 영양군 산악자연휴양림

봄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 영양군 산악자연휴양림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IDA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축백수림, 외새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경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민속문화박물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휴양림,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령산자연휴양림, 영양산생태휴양림,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